P5

Crescentic glomerulonephritis의 임상적 고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조 용 현 · 강 경 원 · 김 상 목 · 박 찬 현 · 강 종 명 · 박 한 철 · 박 문 향*

Crescentic rapidly progressive glomerulonephritis(GN)는 주요 조직학적 소견으로 50%이상의 crescent형성을 보이고 임상적으로는 3개월 내에 50%이상 사구체 여과율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는 임상병리학적 질환이다. 대부분의 crescent GN이 몇 주에서 몇 개월에 걸친 급격한 진행경과를 보여 말기 신부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crescent GN의 임상적 아형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조직학적으로 crescentic GN으로 진단된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질병의 임상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동안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실시한 신조직생검에서 crescentic GN으로 진단된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진료기록과 CBC, ESR, 소변검사, 24시간 단백뇨량, 혈중 크레아티닌, 면역단백, cryoglobulins, ANA, ANCA, 신조직소견등의 검사실 소견과 임상 양상을 분석하였다. 대상환자 17명중 남자 11명, 여자 6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37.9세(15세-74세)였다.

(1) 임상양상 : 전간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가 2명이었고 감염이 동반된 경우가 2명, 피부증상 1명, 폐증상 6명, 위장관증상 5명(대변잠혈반응 양성 2명), 심막염 1명, 비출혈 2명, 상악동염 1명등으로 나타났다. 본원에서 치료받은 9명중 폐혈증의 경과를 보이며 사망한 1명과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보존적요법을 받고 곧 회복되었던 1명을 제외한 7명의 환자들은 급성신부전으로 다량의 스테로이드 pulse 치료를 받았다. 외래 추적이 가능했던 환자 7명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모두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었다.

(2) 내원 당시 고혈압이 있었던 환자는 77.7%였고 뇨검사에서 현미경적 혈뇨와 단백뇨는 100%에서 관찰되었다. 평균혈색소치는 8.54g/dl(6.6-13.9g/dl), 백혈구치는 4,700-25,000/mm^3로 33.3%에서 증가하였다. 혈중 크레아티닌치는 평균 5.92mg/dl로 최소 2.0mg/dl에서 최고 10.4mg/dl까지 상승되어 있었고 24시간 뇨 단백평균치는 3.58g/day, 크레아티닌청소율은 7.5ml/min였다. 보체의 감소는 2명에서 관찰되었고 1명에서 ANA 양성, 2명에서 ANCA 양성, 83%에서 cryoglobulin 양성, 1명에서 CRP양성으로 나타났다.

(3) 신조직검사에서 사구체내 부분적괴사소견은 0-10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광범위한 모세혈관의 증식이 11명에서 관찰되었다. 16명에서는 평균 31.3%의 global sclerosis를 보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간질내 침윤이 있었고 7명에서는 무척 심한 정도였다. Bowman's capsule의 파괴도 6명에서 관찰되었다. 사구체간질증식은 47%에서 관찰되었으며 tuft necrosis는 64.7%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상 환자들의 경우와 같이 신장의 기능감소와 동반한 crescentic GN은 일차성 또는 이차성 원인질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고 대부분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었다.

P6

내과 입원 환자의 저나트륨혈증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성민*, 송상헌, 이수봉, 곽임수, 나하연

목적 ; 저나트륨혈증은 입원 환자에서 가장 흔한 전해질장애로 환자의 예후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상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환자에 비해 저나트륨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내과 입원환자중 저나트륨혈증을 나타내는 환자의 체액상태, 원인질환, 사망률을 고찰하였다.

방법 ; 저나트륨혈증은 혈장의 나트륨농도가 129mEq/L이하로 정의하였으며, 1996년 3월 1일부터 1997년 2월 28일까지 입원한 내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간중 고혈당성 저나트륨혈증과, 1회만 검사한 경우 혹은 특별한 처치없이 24시간 이내에 교정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론 ;

1. 기간동안 입원하였던 4188명의 내과환자중 저나트륨혈증이 2.8%(116명)에서 보여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60.3%(70명)에서 경한 정도(120~129mEq/L)의 저나트륨혈증을 보였다.
2. 저나트륨혈증 발현 당시의 체액상태는 부종성이 18예(15.5%), 정상혈량성이 54예(46.5%), 혈량과소성이 26예(22.4%), 신부전이 18예(15.5%)이었다.
3. 가장 흔한 원인질환은 부종성은 간부전(12/18, 66.6%), 정상혈량성은 간질환(24/54, 44.4%), 폐질환(22/54, 40.7%)이었고, 혈량과소성은 암질환(12/26, 46.2%)이었다.
4. 저나트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교정된 환자의 72명 중 16명(22.2%), 교정되지 않은 환자 44명 중 21명(47.7%)이었다.
5. 사망한 환자의 21명 중 119mEq/L이하 군은 11명(52.4%), 120~129mEq/L에 속하는 군은 10명(47.6%)으로 나타났다.
6. 주요 사망원인은 비가역적 간부전(5/21, 23.8%), 호흡부전(5/21, 23.8%), 암질환(4/21, 19.0%), 심부전(3/21, 14.3%)으로 나타났다.

결론 ; 저나트륨혈증은 예후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요인보다는 원인 질환의 중증도를 표시하고, 저나트륨혈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또한 저나트륨혈증의 교정이 예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